

유럽 축구리그 개막... 코리안 리거들 출격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면서 축구계의 관심은 3개월 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새 시즌에 돌입하는 유럽 빅리그로 향했다. 국내 축구팬들은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뉴캐슬) 등이 속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는 1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강인(발렌시아)의 1군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스페인 라리가. 이승우(베르나)가 활약할 이탈리아 세리에 A는 19일 개막한다. 또 지동원·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뛴 독일 분데스리가는 25일 개막전을 치른다.

11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토트넘 핫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 2018~2019 시즌 EPL 개막전에서 '한국인 데뷔'가 성사될지는 가장 큰 관심사다.

손흥민, EPL 개막전서 기성용과 맞대결 벌여 이재성, 독일 데뷔전서 '2어서' 인상적 활약

손흥민은 최고 소속팀과 5년 재계약을 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다. 지난달 26일 AS로마전을 시작으로 FC바르셀로나, AC밀란 전 등 프레시즌 4경기에 연속 출전하며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ICC) 2차전에서 F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프레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18골을 넣으며 개인 최다인 2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이 올 시즌 이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손흥민이 아시아계 임 출전으로 시즌 초반 경기들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2017~2018 시즌을 마치고 스완지시티를 떠나 뉴캐슬로 동지를 옮긴 기성용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을 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25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기성용이 올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그가 새로운 팀 색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에 달렸다. 기성용은 지난 2월 레스터시티전에서 155번째 경기에 출전하며 박지성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EPL 최다 출전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다름슈타트로 임대됐던 지동원이 원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로 복귀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을 포함, 두 명의 한국인 선수를 보유하게 됐다. 지동원은 임대 기간 16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

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로 이적한 이재성이 유럽 무대에 적응할지도 관심 포인트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홀슈타인 킬로 이적한 이재성은 4일 함부르크SV와의 2018~2019 시즌 분데스리가 2부리그 개막전 원정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도왔다. 이재성이 홀슈타인 킬의 1부리그 승격에 힘을 보태면 유럽 빅클럽 진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발렌시아)이 언제 1군에서 뛴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강인은 5일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애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32분 교체 투입되며 4경기 연속으로 1군 프레시즌 경기에 나왔다. 이강인은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탈 발렌시아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어 1군 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019~2020시즌 1군 진입을 노린다. /뉴시스



"좋은 결과 만들어 올게요"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소속 공희용, 아시안게임 출전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배드민턴 여자실업팀(감독 김효성) 소속으로 공희용(22) 선수가 출전한다고 9일 밝혔다.

공희용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운동을 시작, 2015년 전북은행 배드민턴 여자실업팀 입단, 곧 이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인도네시아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혼합복식 은메달, 일본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여자복식 은메달, 말레이시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복식 동메달 획득, 국제무대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 했다.

아울러, 공희용 선수는 "목표는 우승"이라며, "열심을 다해 훈련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돌아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임용택 전북은행은행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해 온 공희용 선수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길 바란다"며, "공희용 선수를 비롯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심히 응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지난 8일 상파울루 '브라질 태권도 창립 48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품새와 격파, 태권댄스 등 다양한 시범을 보였다. 9일 밝혔다.

무주 태권도, 브라질에 널리 알린다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브라질 상파울루와 리우, 상호세도시 삼코시에서 교민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 태권도 성지의 위상'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시범 공연은 태권도의 고장 무주와 더불어 태권도원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4명의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은 4일부터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중남미 평화·안녕기원 무주축제'와 5일 상호세도시 캄포시에서 열린 '창립 250주년 행사' 8일 상파울루 '브라질 태권도 창립 48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품새를 비롯한 격파와 태권댄스

학생태권도시범단 13일까지 상파울루 등에서 시범 선보여 12일 학교·도장서 교류활동

등 다양한 시범을 보여 호응을 얻었다. 브라질 현지 교민들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무주 태권도원에 갔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니 기쁘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너무 대견하고 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태권도와 태권도원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10일과 11일에는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한인 문화의 날 기념행사" 무대에 설 예정이다. 12일에는 상파울루 지역의 학교와 도장을 돌며 태권도 교류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보내주시는 환호가 커서 시범무대에 서는 내내 가슴 뭉클했다"라며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 무주군 대표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수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공연을 위해 지난 1일 브라질로 출국했던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13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5일 무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궁 이은경, 7월 여성스포츠투대상 MVP

한국 여자양궁의 기대주 이은경(21·순천시청)이 9일 2018 MBN 여성스포츠투대상 7월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이은경은 지난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8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리자문투(독일)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1차와 2차 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에 일조했다. 이은경은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 출전해 많이 긴장이 됐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면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